

대학생의 특성이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

박경희

수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haracteristics on Marriage Views and Spouse Selection

Park, Kyung He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The University of Suwon

Purpose: This descriptive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that influence their views on marriage and spouse selectio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48 college students through self-reported online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items on the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marriage views, and spouse-selection criteria. The study was conducted between April and October 2021 and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in the SPSS 23.0 program. **Results:** Male students were found to hold more conservative views on marriage compared to female students ($B = -8.967$). Additionally, individuals who placed greater emphasis on internal factors when selecting a spouse tended to have more conservative marriage views ($B = .576$). The explanatory power of this model was 27% ($F = 1.62, p = .016$). Regarding the criteria for spouse selection, it was found that female students ($B = 4.877$) and individuals with more conservative marriage views ($B = .128$) considered a broader range of factors. The explanatory power of this model was 24% ($F = 2.08, p = .001$).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data that can inform policy and cultural strategies to address societal challenges such as declining marriage and birth rates by highlighting shifts in marriage views and spouse-selection preferences.

Key words: Marriage, Spouse, Studen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결혼은 합법적으로 가족을 형성하여 남녀가 사회를 존속하면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가족 내에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한다. 결혼제도를 통해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정서적, 사회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여 자녀를 양육하여 종족을 계승하게 되므로¹⁾ 결혼과 함께 배우자 선택은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사항이다. 인생에서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고비로도 여겨지는 결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면, 가장 먼저 대두하는 법적인 문제는 이혼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조이혼율은 2013년 2.3건에서 2023년 1.8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²⁾ 이는 결혼 건수의 감소 때문이고,³⁾ 결혼 건수 대비 이혼 건

수는 동년 35.7%에서 47.7%로²⁾ 증가하였다. 이처럼 이혼의 증가는 당사자에게 장기간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붕괴로 이어져 한부모가족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³⁾ 그러므로 행복한 결혼 유지를 위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바른 안내가 필요하다.

젊은 세대 중 대학생들은 활발한 이성교제를 하는 시기이고 이를 통해 결혼과 배우자 선택을 하는 주관적인 결혼관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고⁴⁾ 대부분 미혼이므로 이들의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관은 가족 가치관의 일부로서 동일 세대가 지닌 공통적인 결혼 및 배우자 선택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신념을 의미하는데,⁵⁾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의 조건은 성별,

주요어: 결혼, 배우자, 학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Kyung He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The University of Suwon, 17 Wauan-gil, Bongdam-eup, Hwaseong 18323, Korea

Tel: +82-31-229-8410 Fax: +82-31-229-8316 E-mail: khpark@suwon.ac.kr

투고일: 2024.11.04 심사회의일: 2024.12.19 게재확정일: 2024.12.20

학력, 종교, 출생순위, 부모의 교육정도, 심리사회적인 성숙도, 소득 등의 변인들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6-8,10-13)} 그러나 연구의 주제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제한적인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어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개인과 가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결혼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올바른 배우자 선택을 유도하는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이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이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편의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H시 S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S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19세 이상이고,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하였으며, 모바일 기기의 활용 능력에 어려움이 없는 미혼인 자이다. G*Power 3.1 프로그램에서 표본 수 산정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β) .8, 설명 변수를 최대 7개로 설정하여 산출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총 128명이었다. 또한, 탈락률을 10%를 고려하고 선행 논문을 참고하여 최종 140명을 본 연구에 참여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모바일 기기에서 구글 독스(Google Docs)를 통하여 148명으로부터 설문지를 수집하였고, 탈락하거나 제외한 설문지 없이 총 148개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S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IRB No. 2021-043-08)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이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

관, 배우자 선택 도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년, 전공, 종교, 출생순위, 부모의 학력, 거주형태, 경제적 수준 등을 포함하여 9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결혼관 도구는 Lee⁷⁾의 결혼관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위요인은 결혼의 제도 5문항(예. 결혼은 바람직한 제도이다) 및 정서적 안정(예. 결혼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에 대한 11개 문항, 결혼조건(예. 결혼은 조건이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3문항이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관에 대해 보수적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hronbach's α 는 .822였고,⁷⁾ 본 연구에서는 .816이었다.

배우자 선택 도구는 연령, 재산, 학력, 외모, 직업, 가정환경, 장래성 등을 포함한 외적 요인 7개와 매력, 애정도, 정서적 성숙, 대인관계, 상호보완 역할, 성격, 가치관, 종교 등을 포함한 내적요인 8개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Ban⁸⁾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조건에 대해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hronbach's α 는 외적요인과 내적요인 각각 .733, .860이었고,⁸⁾ 본 연구에서는 각각 .810, .787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S대학의 10개 단과대학별 과대표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구글 독스(Google Docs)의 모바일 링크 배부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연구대상자에게 스크리닝 번호를 부여하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을 제공한 후, 해당 대상자가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하고 설문지를 완성하면 등록번호를 부여하였다. 중복 응답자 또한 연구자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설문조사에서 탈락한 대상자의 스크리닝 번호와 등록번호는 계속 유지되며, 탈락하는 경우 그 번호도 같이 탈락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탈락한 사례는 없었다. 새로운 대상자는 반드시 새로운 대상자 스크리닝 번호와 등록번호를 할당받았고,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를 위해 설문지에 대상자 배정번호만 쓰여 있어 조사자는 대상자의 비밀을 유지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 배우자 선택의 차이는 t-분석, 분산분석으로 파악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다중비교(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혼관, 배우자 선택 간 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1세였으며, 여성이 81.1%(120명), 4학년이 33.1%(49명), 의학보건계열이 75.6%(112명),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부모님이 생존해있는 대상자는 93.9%(139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기독교가 30.4%(45명), 출생순위는 맏이가 50.0%(74명)이었다. 71.6%(106명)가 자택에서 통학하고 있었고, 경제적 수준은 60.1%(89명)가 보통, 21.0%(31명)는 높은 편이라고 답하였다. 대상자 부모의 학력은 고졸과 전문대학 이상 졸업이 아버지의 경우 46.6%(69명)와 48.0%(71명), 어머니의 경우 58.1%(86명)와 38.5%(57명)로 각각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서 더미(dummy) 처리한 대표적인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는데, 종교,⁴⁾ 출생순위,⁵⁾ 경제 수준^{6,11)} 등이 있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결혼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보수적이었다($t=2.92$, $p=.006$). 결혼관의 세부내용을 정서적 안정, 결혼제도, 결혼조건으로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을 때 결혼의 정서적 안정($t=3.38$, $p=.001$)과 결혼제도($t=3.61$, $p<.001$)에 대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기타, 무교, 불교 순으로 결혼제도에 대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3.14$, $p=.017$). 어머니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순으로 결혼제도($t=3.34$, $p=.038$)와 결혼조건($t=3.55$, $p=.031$)에 대해 보수적이었다(Table 1).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배우자 선택의 차이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 선택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배우자 선택 시 전반적으로($t=-2.39$, $p=.018$) 조건을 많이 고려하였고, 특히 내적요인($t=-2.25$, $p=.026$)을 많이 고려하였다. 또한 대상

자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 선택 시 전반적으로($F=3.39$, $p=.036$) 조건을 많이 고려하였고, 특히 내적요인($F=5.30$, $p=.006$)을 더 많이 고려하였다(Table 2).

4. 대상자의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 간 상관관계

결혼관, 배우자 선택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과의 관계는 결혼관에 대해 보수적인 경우가 배우자 선택 시에도 조건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2$, $r=.25$)(Table 3).

5. 대학생의 특성이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과 모형의 설명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 모형의 모형적합도 지표에 해당하는 Adjusted R²(조정된 설명력), F값과 p값, 그리고 Durbin-Watson 값(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지표)을 산출하였다.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의 Adjusted R² 값은 각각 27%, 24%로 설명력이 높지 않았으나, F값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p값이 각각 .016,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Durbin-Watson 값이 2에 가까울수록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거나 약한 경우 회귀분석 결과의 타당성이 높아진다.⁹⁾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Durbin-Watson 값이 각각 1.89, 1.51로, 2에 가까운 값을 보여 자기상관이 약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잔차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어 회귀모형이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결혼관을 분석한 결과, 결혼관에 대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보수적이었으며($B=-.8.97$), 배우자 선택 시 내적요인을 많이 고려하는 경우가 결혼관에 대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0.58$). 본 모형의 설명력은 27%였다($F=1.62$, $p=.016$, Durbin-Watson=1.89).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배우자 선택의 조건은 여학생일수록($B=4.88$), 결혼관이 보수적일수록($B=0.13$) 전반적인 요인을 많이 고려하였다. 본 모형의 설명력은 24%였다($F=2.08$, $p=.001$, Durbin-Watson=1.51)(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주요 결과와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Table 1. Difference in View of Marri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148)

Variables	n (%) or M±SD	View of marriage							
		Emotional stability		Marriage system		Marriage conditions		Total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28 (18.9)	40.2±7.4	3.38	17.8±2.8	3.61	24.8±4.2	1.09	82.7±12.8	2.92
Female	120 (81.1)	35.4±6.6	(.001)	15.9±2.4	(<.001)	24.0±3.2	(.277)	75.2±9.2	(.006)
Age (range 19~29)									
≤25	22.1±5.1		-1.39		-0.92		-0.52		-1.35
>25	142 (95.9)	36.1±6.9	(.167)	16.2±2.6	(.360)	24.1±3.34	(0.601)	76.4±10.1	(.180)
	6 (4.1)	40.2±8.8		17.2±1.8		24.8±5.4		82.2±15.2	
Grade									
1	43 (29.1)	37.1±5.9	0.70	15.7±2.4	0.97	23.6±2.8	2.00	76.3±8.4	0.16
2	16 (10.8)	37.8±6.7	(.555)	16.3±2.5	(.409)	23.1±3.2	(.116)	77.1±9.9	(.924)
3	40 (27.0)	35.4±7.4		16.5±2.9		24.0±3.8		75.9±10.4	
4	49 (33.1)	35.9±7.7		16.4±2.6		25.0±3.6		77.3±12.0	
Major									
Society of humanity	17 (11.5)	33.7±6.8	1.21	15.7±2.0	0.92	24.0±2.7	0.45	73.4±8.2	1.17
Engineering	17 (11.5)	37.5±8.5	(.308)	17.0±3.0	(.432)	23.9±3.5	(.719)	78.4±13.4	(.326)
Art/physical education	2 (1.4)	32.5±9.2		15.0±2.8		21.5±5.0		69.0±17.0	
Medical health	112 (75.6)	36.6±6.8		16.2±2.6		24.2±3.5		77.1±10.4	
Parent survival status									
All	139 (93.9)	36.5±6.9	1.14	16.2±2.7	0.05	24.1±3.5	0.02	76.8±10.5	0.40
Only father	3 (2.0)	35.3±11.7	(.324)	16.0±1.0	(.954)	24.3±2.9	(.981)	75.7±13.3	(.672)
Only mother	6 (4.1)	32.2±6.0		16.5±1.2		24.3±1.9		73.0±5.3	
Religion									
Protestantism ^a	45 (30.4)	37.9±7.2	1.36	17.2±2.5	3.14	24.7±3.9	1.43	79.9±10.0	2.11
Catholicism ^b	16 (10.8)	33.6±8.1	(.253)	16.5±2.0	(.017)	22.8±2.1	(.229)	72.9±8.7	(.083)
Buddhism ^c	4 (2.7)	34.0±5.7		15.3±1.7	a>b>e	21.8±4.4		71.0±10.4	
No ^d	81 (54.7)	36.0±6.6		15.6±2.7	>d>c	24.2±3.3		75.8±10.5	
Etc. ^e	2 (1.4)	36.5±5.0		16.0±1.4		25.0±5.7		77.5±12.0	
Birth order									
1st	74 (50.0)	35.8±6.8	0.91	15.8±2.5	0.91	23.8±3.3	0.91	75.5±9.6	1.11
2nd	11 (7.4)	39.0±6.3	(.440)	16.2±2.9	(.440)	25.1±4.4	(.440)	80.3±12.1	(.346)
3rd & more	53 (35.8)	36.7±7.3		16.7±2.8		24.4±3.6		77.8±11.0	
Only	10 (6.8)	34.7±7.9		15.9±2.0		23.8±1.6		74.4±9.6	
Residential types									
One's own house	106 (71.6)	36.1±7.0	0.56	16.3±2.5	-0.75	24.4±3.4	-1.82	76.8±10.2	-0.41
The other side	42 (28.4)	36.8±6.9	(.576)	16.0±2.8	(.452)	23.3±3.3	(.071)	76.1±10.7	(.685)
Economic status									
High	31 (21.0)	38.4±5.8	1.90	16.2±2.2	0.29	24.5±3.3	0.73	79.2±9.4	1.26
Middle	89 (60.1)	35.9±7.5	(.154)	16.1±2.7	(.746)	24.2±3.6	(.482)	76.2±11.0	(.287)
Low	28 (18.9)	35.3±6.4		16.5±2.7		23.5±2.9		75.3±9.1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8 (5.4)	35.1±4.1	0.40	16.5±1.6	0.92	23.6±3.4	1.18	75.3±6.3	0.96
High school	69 (46.6)	35.9±7.3	(.671)	15.9±2.6	(.401)	23.7±3.4	(.311)	75.5±10.6	(.386)
≥College	71 (48.0)	36.8±7.0		16.5±2.7		24.6±3.5		77.9±10.4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a	5 (3.4)	35.4±8.9	0.57	18.0±3.7	3.34	27.2±4.4	3.55	80.6±15.1	1.93
High school ^b	86 (58.1)	35.8±6.7	(.565)	15.8±2.4	(.038)*	23.6±3.1	(.031)*	75.3±9.6	(.149)
≥College ^c	57 (38.5)	37.1±7.5		16.7±2.8	a>c>b	24.6±3.6	a>c>b	78.3±10.8	

M=mean; SD=standard deviation; *Scheffé test.

Table 2. Spouse Sele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8)

Variables	Spouse selection					
	External factors		Internal factors		Total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25.0±4.7	-1.65	32.5±4.6	-2.25	57.5±8.2	-2.39
Female	26.6±3.9	(.107)	34.4±3.9	(.026)	61.0±6.6	(.018)
Age (year)						
≤25	26.3±4.0	0.69	34.1±4.1	0.64	60.4±7.1	0.76
>25	25.2±5.6	(.492)	33.0±2.1	(.525)	58.2±5.9	(.446)
Grade						
1	25.7±3.5	0.56	34.3±3.8	0.88	60.1±6.2	0.28
2	26.3±2.9	(.646)	32.7±4.2	(.451)	59.0±6.5	(.837)
3	26.2±5.1		34.5±4.0		60.7±7.9	
4	26.8±4.0		33.8±4.4		60.7±7.4	
Major						
Society of humanity	26.7±3.8	1.04	35.1±3.6	0.85	61.8±6.3	0.93
Engineering	24.7±4.3	(.376)	32.9±4.5	(.467)	57.5±7.7	(.451)
Art/physical education	26.5±0.7		34.0±4.1		60.5±0.7	
Medical health	26.5±4.1		34.1±4.1		30.6±7.1	
Parent survival status						
All	26.3±4.1	0.81	34.0±4.1	0.40	60.3±7.2	0.05
Only father	28.7±2.1	(.446)	33.0±4.4	(.671)	61.7±6.4	(.948)
Only mother	25.0±2.6		35.3±3.8		60.3±7.1	
Religion						
Protestantism	26.3±4.1	0.80	34.8±3.6	0.89	61.1±6.5	0.84
Catholicism	27.3±3.7	(.528)	34.0±4.2	(.475)	61.3±6.5	(.504)
Buddhism	28.0±1.8		35.5±1.9		63.5±3.5	
No	25.9±4.2		33.5±4.3		59.5±7.5	
Etc.	29.0±2.8		35.0±7.1		64.0±9.9	
Birth order						
1st	26.6±3.7	1.92	33.8±4.1	1.30	60.4±6.8	1.70
2nd	24.5±4.4	(.129)	33.6±5.3	(.277)	58.0±7.8	(.171)
3rd & more	25.8±4.4		34.1±4.0		59.9±7.4	
Only	28.2±4.0		36.4±3.0		64.6±5.9	
Residential types						
One's own house	26.3±4.0	-0.01	34.4±4.0	-1.60	60.7±6.9	-0.93
The other side	26.3±4.3	(.993)	33.2±4.2	(.111)	59.5±7.5	(.357)
Economic status						
High	27.0±3.7	0.56	34.8±3.2	0.87	61.8±5.9	0.94
Middle	26.2±4.3	(.570)	33.9±4.3	(.422)	60.1±7.5	(.395)
Low	26.0±3.9		33.5±4.2		59.5±6.9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26.9±3.0	0.20	33.6±3.3	0.55	60.5±5.7	0.05
High school	26.4±4.2	(.823)	33.7±4.2	(.576)	60.1±7.3	(.950)
≥College	26.1±4.1		34.4±4.1		60.5±7.1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a	29.0±4.0	1.44	33.6±3.3	5.30	59.1±7.3	3.39
High school ^b	26.0±3.8	(.241)	33.7±4.2	(.006)*	61.8±6.5	(.036)*
≥College ^c	26.5±4.4		34.4±4.1	a<b<c	64.4±7.1	a<b<c

M=mean; SD=standard deviation; *Scheffé test.

첫째,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이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보수적이었다. 보수적인 내용으로는 결혼에 대해 '바람직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좋은 것이다' 등 결혼을 전통적이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10,11)} 일치하였다. 또한 결혼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생각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¹²⁾ 남성이 결혼관에 대해 보수적이라 한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덜 보수적이어서 현대적인 결혼관에 가깝고,⁵⁾ 이는 남성이 결혼에 긍정적이어서 결혼의향이 여성에 비해 높다는 결과도^{4,10,13)} 지지하였다.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에서도 남성들의 '결혼은 해야 한다'가 51.2%,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41.4%, '하지 말아야 한다'는 4.4%로⁴⁾ 남성은 결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지만, 여성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선택의 개념으로 여기는 비율이 높아¹⁴⁾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이 덜 보수적이며 현대적 개방적 결혼관을 가졌

다는 것은¹²⁾ 기성 세대와 다르게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¹⁰⁾ 여성에게는 결혼이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하는데 제약이 있고,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혼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할에 따른 의무가 부담되어 결혼 생활을 원만히 유지할 자신도 없기 때문에¹²⁾ 미혼인 채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Park¹⁵⁾은 여성의 65%가 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여성들은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2%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비록 가정 내 성 역할의 형평성이 과거보다는 향상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견해가 일반화된 것이라고는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⁶⁾ 그러므로 앞으로 결혼과 동반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의식이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고유한 성에 대한 역할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과중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고 개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여성은 배우자 선택 시 조건을 많이 고려하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여성들이 자신보다 더 높은 소득을 버는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으나¹⁶⁾ 활동하는 여성의 증가로 여성의 경제나 지위 등의 수준은 향상되는 것에 반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의 남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여성들이 결혼하지 못하면서¹⁷⁾ 결혼의 기회와 필요성이 희박해지는 상황 때문에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결혼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은 결혼관이 정립되는 시기이므로 결혼과 자아실현을 양립할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

Table 3. Pearson Correlation in View of Marriage, and Spouse Selection

Variables	View of marriage
	r (p)
Spouse selection	
External factors	.16 (.047)
Internal factors	.27 (.001)
Total	.25 (.002)

Table 4.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View of Marriage and Spouse Selection

Variables	View of marriage					Spouse selection				
	Total					Total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56.40	9.42		5.99	<.001	16.34	3.70		4.42	<.001
Gender	-8.97	2.06	-.34	-4.36	<.001	4.88	1.51	.27	3.23	.002
Religion	1.99	1.61	.10	1.24	.219	0.55	1.14	.04	0.48	.634
Residential types	0.48	1.47	.38	0.98	.280	0.31	1.25	.02	0.25	.805
Father education level	1.68	1.21	.14	1.38	.169	-0.59	1.15	-.05	-0.51	.608
Mother education level	0.03	1.50	.01	0.17	.862	1.31	1.27	.10	1.03	.304
View of marriage total						0.13	0.06	.32	3.87	<.001
Spouse selection										
Internal factors	0.58	0.24	.23	0.62	.017					
External factors	0.14	0.23	.06	2.41	.537					
F=1.62, p=.016, Adjusted R ² =.27, D-W=1.89						F=2.08, p=.001, Adjusted R ² =.24, D-W=1.51				

록 안내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전략들을 마련해야 하겠다.

둘째,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결혼관이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결혼관에 보수적일수록 배우자 선택 시 조건을 많이 고려하였다. 가정에서 사회·경제적 위치는 남성이 주도적인 현 사회에서, 남성은 결혼 후 배우자에 의해 남성의 위치에 큰 변화가 없지만 여성은 결혼 후 출산 및 육아 등을 맡게 되는 성 역할로 인해¹²⁾ 사회·경제적 위치의 변화가 남성에 비해 많을 뿐 아니라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여성의 결혼생활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조건을 많이 따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의 전통적인 조건을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는 보수적인 결혼관을 가진 경우는⁵⁾ 안정된 결혼을 위해 배우자 선택 시에도 여러 조건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성의 경우 성공적인 결혼이 배우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¹⁸⁾ 여학생은 배우자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배우자 선택 시 외적조건으로 가정환경과 경제력 등은 여학생이, 남학생은 외모 등을 많이 고려한다고 하였으나⁵⁾ 최근에는 배우자의 조건으로 애정, 성격, 매력과 같은 주관적인 조건을 중시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⁴⁾ 특히 여학생은 인생의 동반자를 사랑하고 성격이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적인 요인을 많이 고려한다고 하였다.⁵⁾ 그러므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배우자 선택 시 시간을 갖고 내적요인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감성적인 전략에 대한 학습이 대학생들에게도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유의하다고 나온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연령 변인에 대해 '저연령' 일수록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기실현에 대한 의지가 높아져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결혼을 덜 우선시 하게⁵⁾ 되는 사회현상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는 모두 대학생이어서 연령의 차이가 없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종교' 변인에 따라 결혼관이 보수적인 성향도 두드러지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종교인의 경우에는 종교가 지니고 있는 특유의 보수적인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개방성 혹은 현대성 이라는 환경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더 강하였을 것이라고¹²⁾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종교 종류에 따라 그룹 간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모든 변인을 다 고려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경기도 지역의 S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자료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둘째, 대상자의 다양한 인식의 차이가 될 수 있는 가족의 형태(예. 핵가족, 조손 가족, 한부모 가족 등)나 친밀도 등 개인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대상자가 대부분 여학생으로서 남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였으나, 결혼관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미혼의 모든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제로서, 대학생을 포함한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다양한 개인 배경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남녀 대학생의 비율을 유사하게 한 추후 연구를 통해 폭 넓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결혼관과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결혼관은 성별과 배우자 선택 변수가 영향을 주었으며, 배우자 선택은 성별과 결혼관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에 결혼관에 더 개방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자유와 자아확립,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로 인해 결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현대적인 결혼관을 가짐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성으로서 아내, 어머니, 직장인 등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족과 직장, 국가 차원의 여성에 대한 정책적이고 실질적인 배려 있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배우자 선택 시 여학생이 배우자의 조건을 많이 고려하는데, 이는 여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본인의 경력과 활동에 제약이 적은 결혼생활 조건을 원하다 보니 배우자 선택 시에도 조건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이 결혼하더라도 가정을 돌보고 출산의 역할을 하더라도 여성으로서의 자기개발과 사회적 위치 등이 남성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기업과 국가에서 사회심리적인 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셋째, 여학생이 배우자 선택 시, 사랑하고 성격이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희망하는 것과 같은 내적요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와 믿음을 동반한 내적인 면을 많이 고려하도록 하여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 사회문화를 잘 형성하여 결혼을 통해 행복

감과 부모 됨으로써의 보람, 최근에 이슈가 되는 혼인을 감소와 출산을 저하 극복, 이혼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ORCID

박경희 0000-0002-0131-3565

REFERENCES

1. Ahn YH. Family nursing. Paju: Hyeonmunsa; 2017. p. 12-32.
2. KOSIS.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rean social indicators. Available at: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H&checkFlag=N [accessed on 14 October, 2024].
3. Kong J. A study on the needs for pre-marital preparatory education for the divorce prevention: Focusing on the increase in public assistance and christian education due to the increase in divorce rate. J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020;66:99-129.
4. Lee RA, Lim W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and marriage outlook. Ind Promot Res. 2024;9(1): 179-87. doi: 10.21186/IPR.2024.9.1.179
5. Park JA. A study on view on marriage and perception on parenthood among college students [thesis]. Seongnam: Gachon Univ; 2018.
6. Park SH.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the perceptions of marriage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Health Welf. 2019;21(3):87-106. doi: 10.23948/kshw.2019.09.21.3.87
7. Lee JW. On the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views over family, marriage, and children [thesis]. Seoul: Yeungnam Univ; 2006.
8. Ban SW. The influence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 on spouse selection: Mediated by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self-differentiation [dissertation]. Seoul: Hanyang Univ; 2013.
9. Han SS, Lee SC. Statistical analysis for nursing and health using SPSS-Amos. Revised ed. Seoul: Hannarae Publisher; 2018.
10. Kim H, Kim HJ, Seo MS. Comparison of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views on marriage of male and female students. J Korea Converg Soc. 2020;11(3):153-62. doi: 10.15207/JKCS.2020.11.3.153
11. Lee IS. The influence of the intention of childbirth and family strengths on marriage value of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Ind coop Soc. 2022;23(3):78-86. doi: 10.5762/KAIS.2022.23.3.78
12. Bae YJ.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 marriage by various religious affiliations: A cross-national comparison among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a sociology [thesis]. Seoul: Sungkyunkwan Univ; 2017.
13. Cho S, Byoun SJ.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dating and marriage intention among unmarried population. Health Soc Welf Rev 인문사회21. 2020;40(4):82-114. doi: 10.15709/hswr.2020.40.4.82
14. Moon H, Sun CJ. The impact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view of marriage and children in university students. J Korea Converg Soc. 2022;13(1):447-56. doi: 10.15207/JKCS.2022.13.01.447
15. Park J.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perceptions of parenthood and procreation consciousness in 2030 generations. J Humait Soc Sci 21. 2020;11(6):2349-64. doi: 10.22143/HSS21.11.6.166
16. Chung M, Lee K. Hypergamy among South Korean wome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marriage rate. Popul Res Policy Rev. 2021;41:929-51. doi: 10.1007/s11113-021-09672-5
17. Yim J, Yoo C, Cho S, Park KS. Climbing up the marriage ladder: The effect of gender and class on high-income partner preferences in Asia. Korea J Popul Stud. 2022;45(4):1-24. doi: 10.31693/KJPS.2022.12.45.4.1
18. Son K. A qualitative study on female college students' views on marriage. Korea J Donghak Stud. 2024;69:173-205. doi: 10.46639/kjds.2024.69.6